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0월 2일 (제1169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럼

황당무계(荒唐無稽)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다. 88올림픽 성공 기념축제가 대대적으로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니 올림픽공원의 체육관을 이용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당장 예배드릴 곳이 없었다. 당시 교회 행정을 보던 박대경 장로가 이런 사실을 나에게 보고했다. 나는 그 장로에게 “걱정 마.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랬더니 박 장로 하는 말이 “참 황당무계하신 분이시네. 국가행사가 다 잡혀있는데 어떻게요?”라며 나를 쳐다본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박대경 장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대형 태풍이 비바람을 몰고 오는 바람에 올림픽공원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다. 그 전화를 누가 받았는지 아는가. 바로 박 장로다. 놀란 그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다.

‘황당무계’란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말한다. 하나님은 황당무계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사람 쪽에서 보면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마음만 있으면 별거 아닌 일이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 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황당하기 그 지없다.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뱃새가 나는데 어찌 살아나온 단 말인가. 그런데 무덤의 돌을 옮기니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 것 아닌가.

또한 어느 직원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며 예수님이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서 하신 말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셨다. 황당무계하신 말씀이다. 누가 봐도 죽었는데. 그러니 거기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마9:24).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으니 살아났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황당무계하여 믿을 수 없다 한다. 그건 안 믿으려는 사람들의 변명이다. 나는 성경이 황당무계해서 감사하다. 불가항력의 상황일 때 터무니없을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니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더욱 감사하다.

포기(抛棄)는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라!”
 “포기는 곧 자살이다!”
 목사님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웅변해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님 하면, 일을 시작하시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끝장을 보시는 분이려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도 그대로 체득이 되었는지 일을 대할 때 동일한 자세로 임하게 된다.

맛볼 수 없고, 단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세요. 엘리야를 따르던 생도들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감절의 영감을 받겠다는 각오로 무시를 당하고, 내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니 뜻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뵈엘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왕하

나. ‘나도 엘리야 선생님이 떠나실 줄 알아.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의 자세에 엘리야도,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뜻을 이루었고, 한 시대에 맥을 잇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엘리사뿐입니까? 보리떡을 강령한 친구의 이야기(눅11:5~8)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령한 과부의 이야기(눅18:2~5)를 보세요. 친구라서 떡을 내준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사정이 딱하다고

내 성공 비결은

삶 속에 대충이란 균을 잡은 것이다

봉우 이초석 목사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라

목사님은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기필코 정신을 배우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나의 성공비결은 내 삶 속에서 대충이라는 균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라’는 나의 잠언은 바로 최선을 다해 달려온 내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왜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얼렁뚱땅하며 매사 최선을 다하지 않기에 인생에 실패하고 피폐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니 그 삶에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조급한 대충이란 균을 잡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도

2:2). 길갈에서 나오며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뵈엘로 보내니 엘리사야,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고 말합니다. 뵈엘, 여리고, 요단으로 옮길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제발 따라오지 말고 남아있으라 명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단호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왕하2:4,6). 어디 그뿐입니까? 엘리야뿐 아니라 동료 선지생도들도 말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입 다물라’고 일갈합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왕하2:3,5). 엘리사는 동료 선지생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겁

인정해서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밤에 자야 하는데 예의고 뭐고 무시하고 찾아와서 밤새 문을 두드리니 귀찮아서 내준 겁니다. 과부가 언제까지 찾아와 번거롭고 귀찮게 할지 몰라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막무가내의 두 사건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강령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밤낮 부르짖으면, 나는 꿈쩍없이 들여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의 약점을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집니까? 오늘 엘리사, 과부의 기필코 정신을 배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포기는 마귀나 원하는 일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41:15~49)



지혜로운 자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이다.’

미리미리 공부한 자는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저축해놓은 자는 큰일이 닥쳐도 겁나지 않고, 미리미리 겨울을 준비한 자는 한파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한 자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고, 미리미리 사후를 준비한 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자금을 준비한 기업은 불황을 타지 않고, 미리미리 만사를 준비해둔 국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고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이요, 무비유환(無備有患)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이 이상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유비무환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애굽왕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두 번 연이어 같은 맥락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누구도 해몽하지 못한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는데, 이는 곧 애굽 땅에 칠 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 칠 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든다는 꿈의 계시였습니다.

바로는 지체하지 않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 이에 대비하라고 명합니다. 바로의 명에 따라 약관의 나이로 총리에 오른 요셉은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이 계속된 칠 년간의 소축을 각 성에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바다의 모래 같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창41:47~49). 넉넉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국은 물론이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국가까지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애굽을 부국(富國)으로, 강국(強國)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리던 가족과 다시 상봉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기대할 것이 없다

솔로몬이 거침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동력도 그의 아버 다윗이 성전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돈은 물론이요, 성전을 장식할 보석까지 준비했으며, 심지어는 작은 못까지도 다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석수와 목수, 일에 능한 자들도 다 확보해놓

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교회 성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더디다고 할지 몰라도 도중에 낭패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중도하차 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니까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

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그렇게 아니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눅14:28~30).

그럼요, 대충 준비하면 준비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대강대강 준비하면 폭망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었으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대충, 대강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대충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고, 다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잔치 문이 닫히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받을 값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

나는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세요. 이런 사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와 대충 준비한 자의 결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2~44).

철저히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고 이상한 곳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나 라 우 리가 할 일은 언제 오셔도 들림 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지만 철저히 방주를 준비한 노아처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는 게을러서입니다. 오래전에 ‘개미’라는 영화를 비행기 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것들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지만,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여름에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미물인 개미도 추수 때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잠6:8). 그래서 주님은 준비에 게으른 자, 준비에 미비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잠6:6).

날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겨울철 옷도 미리 꺼내서 준비해야지요. 점검하지 않고는 마구 사대지 말고요. 지난 태풍 때 보니까 정전된 지역도 많습디다. 랜턴이나 초를 미리 준비해놓은 집은 그런 경우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거리 여행을 할 때면 소변통도 하나 준비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차가 막혀도 당황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노후도 준비해야지요. 준비 없는 노후는 지옥입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저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후도 준비해야지요.

대충이란 균을 잡아야 성공한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다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 한 귀족의 집에 미련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비록 미련하기는 했지만 충직하여 주인은 그를 늘 곁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팡이를 주고 오너라.” 종은 주인의 말대로 지팡이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지친 종은 지팡이를 들고 주인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던데요.” 그러자 주인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팡이는 네가 주인이야. 세상에 너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걸 너는 알고 있었거든.”

세월이 지나 주인이 노환으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먼 길을 떠나야 할 것 같다.” 그러자 종이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제가 짐이라도 들어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주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주 멀리 간단다. 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단다.” 주인의 말에 놀란 종은 “아니, 그렇게 멀리 가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더니 자기 방으로 달려가 지팡이를 들고 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인마님이십니다. 이 지팡이를 도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사후를 준비하는 자는 더욱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 삼라만상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수양을 준비하셨으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준비하셨고, 또 장차 우리가 살 천국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단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몇 해 전에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용 쪽에 취직을 하려 하는데 가는 미용실마다 주일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아이가 하루는 나에게 와서 기운이 다 빠진 말로, “아빠, 나 괜히 미용 쪽으로 공부했나봐. 가는 곳마다 주일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 한다. 그때 아이에게 “지금부터 아빠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미용실을 예비해두셨을 거야.”라며 기도해주었다. 그리고 3, 4일이 지난 후에 아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미용사가 20명 정도 되는 미용실에 취직이 되었다는 것이다. 원장이 ‘주일에 안 나와도 좋다. 대신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그 미용실에 면접을 보러왔는데 원장과 팀장이 주일에 교회 때문에 미용실에 나올 수 없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우연히 딸아이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원장님, 나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미용실에 못 나오잖아요.” 했더니, 원장이 “아! 하음 선생도 교회 나가지?” 하면서 그 친구를 합격시켰다. 딸아子和 예수 믿는 또 다른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인지 그다음에 또 예수 믿는 친구가 그곳에 면접을 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합격을 시켰다고 딸아이가 나에게 간증을 했다. 예수를 믿어서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 오히려 예수 믿는 이들을 먼저 합격시키는 멋진

장영국 목사

:: 성경예세이::

진정과 신령으로

여보게!
나는 우리 성가대가 연습 부족으로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나 기도 부족으로 은혜가 없을 때, “집어치워!”라고 단호히 말하네. “총독 앞에서 그렇게 해봐라. 용납하겠나.”라고 하지.

그리고 나면 해외 회원들에게서 꼭 문자가 온다네. 그러다 성도들 다 떠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떠나고 안 떠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이 떠나실까 두려울 뿐이다.”라고.

국가 차원의 행사 때 합창단을 보게나. 충분한 연습으로 완전한 하모니를 이룰 뿐 아니라 복장이며 헤어스타일은 물론한 음, 한 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하겠나. 행사도 그러할진대 예배가 어디 행사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먹다 남은 떡을 드리듯, 으레 매주 하는 행사처럼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를 열납하시겠는가.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지 않겠나.

여보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16) 하셨다. 마태복음 2장 1~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 따라 예수 앞에 경배하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이다. 작은 별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

언젠가 TV 종편방송에서 박보검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몇 사람의 패널리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 한 패널이 이야기하길, “박보검을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박보검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증명했고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모습을 봤다.

박보검처럼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혹은 어떤 이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여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인격,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야 한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름다운 믿음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예수의 빛을 찬란히 비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봉우

:: 교단소식 ::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9월 24일, 월드프레이즈 찬양단이 대구 예수중심교회에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찬양부흥회를 열었다. 월드프레이즈 찬양단을 이끌고 있는 이월드 목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워 기도하던 중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찬양을 통해 예배의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길 소망함으로 찬양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월드프레이즈 찬양단은 전국 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일꾼들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드려 헌신하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찬양단이다. 이월드 목사는 찬양을 시작하기 전, 일꾼들에게 찬양부흥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성공한 부흥회라며 끝까지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을 구하자고 독려했다.

성전에 모인 많은 분들과 함께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비가 내리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을 때,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이월드 목사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인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고백하며 헌신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설교했고, 말씀 후에 더욱 열정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앞으로 월드프레이즈 찬양단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찬양으로 전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한다.

윤보혜 생도



:: 생명의 말씀 ::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가정의 전기 제품을 컨트롤 할 수 있다. 기차도 비행기도 예약할 수 있다. 안마의자에 앉으면 알아서 구석구석 안마를 해준다.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모든 것을 집으로 배달해준다. 마귀는 이 편한 세상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속삭인다. 불편하면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따르는 것은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한다. 불편하다.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내가 새롭게 되는 길이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시119:33).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시119:72). 천천 금이 단지 물질적 가치만을 말하

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삶 가운데서 추구하는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시인은 그 모든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119:11)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모습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기준이 있다.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아니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정해져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한다.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기준대로 살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고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몰라서 법을 어긴 것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한다.

임택함 목사

하나님 아버지 체면 세워드리기

저에게는 캐나다 유학 중인 늦둥이 딸아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캐나다 유학길에 올라 어느덧 졸업반입니다. 딸 아이가 다니는 대학은 캐나다 사립대학인데 1년 3학기 쿼터제 학사일정으로 1년에 3번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개월에 한 번씩 등록금 고지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관입니다. 소위 말하는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한 학기 등록금에 1,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요즘 환율과 금리가 올라서 4개월마다 1,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등록금 청구는 당당하고 간단명료합니다. “아빠! 이달 20일까지 1,500만 원 대학 등록금계좌로 돈 보내! 알았지?” 마치 내게 맡겨놓았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딸아이가 아버지께 대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며 아비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당당하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은 자식의 권리이고,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고 도리이며, 부모의 흐뭇한 열심이며 보람입니다. 부모가 등록금을 마련해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기체후 일양만강 하옵시고 평안하옵신지요? 두 분 모두 건강하옵시고 맥내 두루 평안하옵신지요? 가을 환절기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온데 건강에 유의하시옵소서.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에도 등록금이 고지되었사옵나이다. 경황이 없으시고 버겁고 힘드신지 아오나 부모님께서 또 한 번 힘써주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많이 들어본 문장이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웃의 친척 어른신에게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말을 빙빙 돌리면서 중언부언하며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그저 선처와 처분만을 기다리는 뉘 두리입니다. 이런 편지나 문자를 받는다면 부모의 심경이 어떠할까요?

‘이 녀석이 나를 무척 존경하며 어려워하는구나.’ 하며 기뻐할까요? 아니면 ‘내가 자식을 너무 어렵고 인색하게 대했나보구나.’ 하며 탄식하게 될까요? 고아원에서 지내던 한 청년이 친부모의 집요한 수소문과 여러 곳의 탐색을 통해 친

부모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호적에도 자녀의 신분이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의 노력과 헌신으로 사회적 배려자 특례로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집니다. 이 청년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안 하고 매일 부모님 방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신의 소소한 잘못을 매일 여러 시간 회개하며 아뢰고, 회개가 끝나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신 부모님 은혜만을 반복적으로 칭송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며 학교는 가지 않고 부모님을 붙잡고 늘 이렇게 허구한 날 반복되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어 땡습니까?

이 부모는 속이 타고 얼마나 힘이 들까요? 친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이 청년이 부모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반찬투정도 하고 당당하게 용돈과 여러 필요경비를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주신다고 해도 때를 쓰며 달라고 강청하고, 때로는 빼져서 ‘나, 밥 안 먹어!’ 하며 부모를 협박(?)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와 감사의 기도보다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자녀가 하는 일이나 업적으로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친부모에게 간구하는 강청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웃의 어른에게 헛일 삼아 안 되면 말고 식의 부탁드리는 뉘두리 기도인가요? 기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을 되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며, 때로는 간절한 심정으로 때를 쓰며 강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9~11).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빚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눅11:7~8).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

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3~8)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되찾듯이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식의 서술 아부형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회개와 감사 일변도로 치우치는 기도도 지양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모와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때를 쓰며 울고, 간혹 절박한 순간에는 ‘나 밥 안 먹어! 들어주실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안 마실 거예요!’ 식의 협박(?)과 큰 소리로 울며 간구하는 강청의 기도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런 강청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의붓아버지로 생각하고 두렵고 어렵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때를 쓰고 강청하며 맡겨놓은 것을 되찾듯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진정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본분은 열심으로 살아내며 우리 삶 속에서 실력 있고 내공이 있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속에서 높여드리는 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된 본분에 충실한 예수중심교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텔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자넨 만나기 위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예수를 믿겠네.”
“그럼 됐네. 이제 나가보게. 나는 또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미리 준비하심

과거에 취업할 때 있었던 일이다. 대학 4학년 때 취업하고 싶은 한 회사만 놓고 담당 목사님과 함께 1년 가까이 기도했었고, 다행히 해당 회사 서류 전형에 통과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면접 심사가 남았다.

면접 당일, 세 명의 면접관이 있는 방에 5명의 응시자가 함께 들어갔다.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가다가 마지막쯤 나온 한 질문을 듣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바로 술 잘 먹냐는 질문이었다. 제조업 분야라 회사 생활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면서 말이다. 당연히 나는 성령 받은 후부터 술을 완전히 끊은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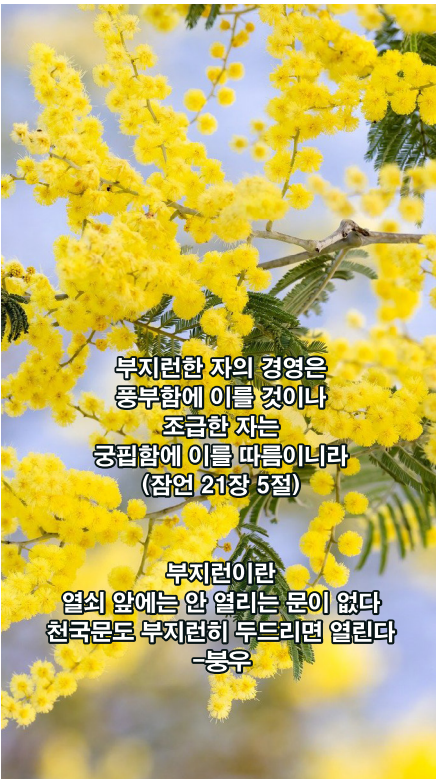
내 옆 다른 응시생들은 다 잘 마신다고 했다. 내 차례가 오기 전,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오고 갔다.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잘 마신다고 할까?’ 하는 생각과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는 두 가지 생각 중 고민하다가 결국 교회 다닌 후에 술을 다 끊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면접관들의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체 왜 그러냐며 면접관들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며 등등 말이다. 들어보니 면접관 한 분이 독실한 신자였고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타박하며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면접은 끝났고 술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했으나 결국 합격했다. 그리고 나는 그 독실한 면접관이 담당하고 계신 부서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회사 신우회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면접관으로 미리 예비하셨고, 내가 솔직히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걸 보시고 합격시켜주신 것이라 확신한다. 늘 더 좋은 길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장명훈 집사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이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목사님 병실 문밖에는 ‘면회사절’이란 글귀와 함께 ‘다만 불신 친구나 친지는 면회가능.’이라고 쓰여 있었다.

마침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님의 친구가 면회를 왔다.
“어째서 신자에게는 사절된 면회가 불신자인 나에게는 허락되었는가?”,
“신자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지만, 자네 같은 불신자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일세. 자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지 않겠나?”,